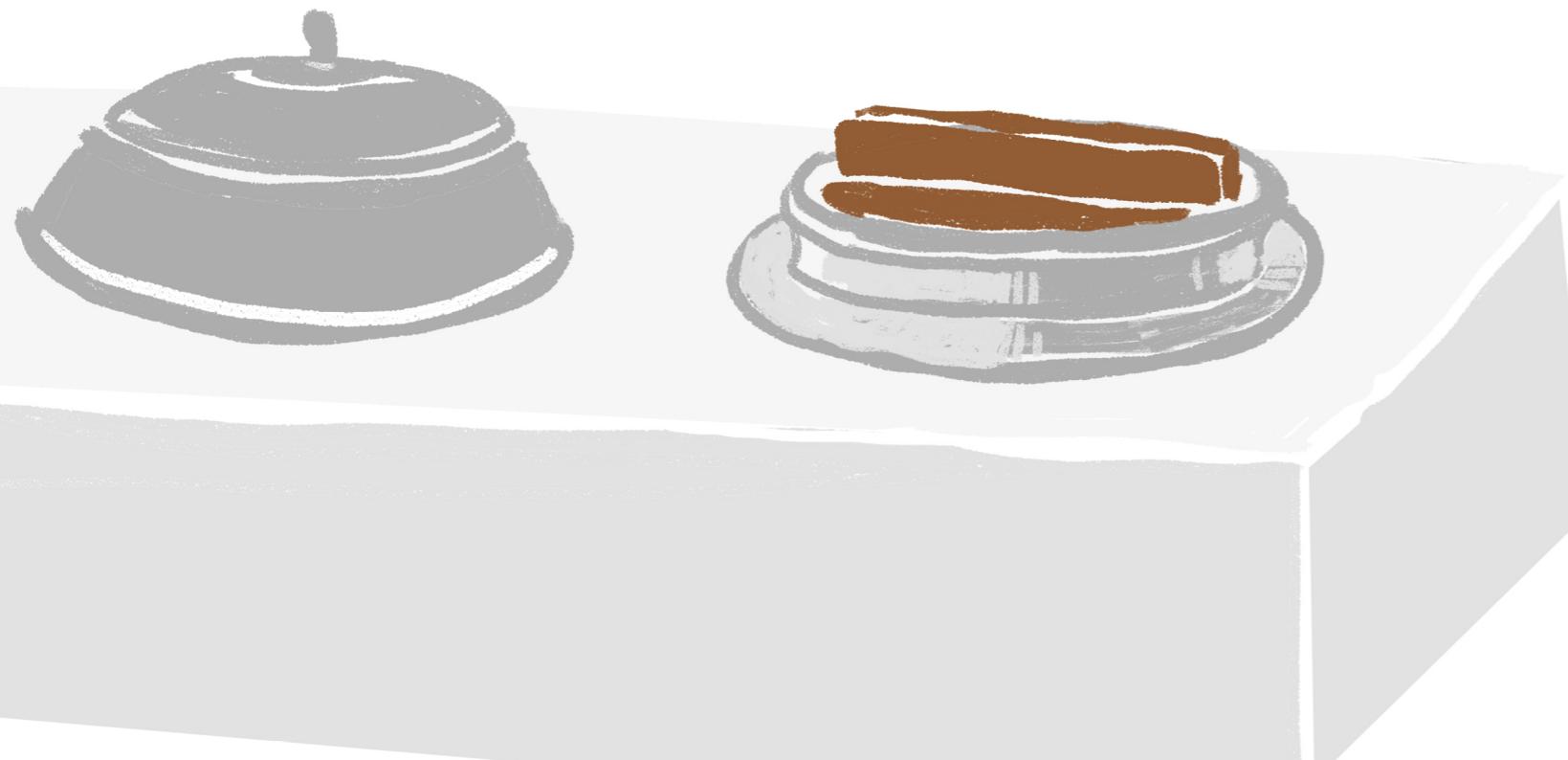


“참어머님, 벌써 나오셨어요?”  
“참아버님께 진지를 챙겨 드리려고요.”

참어머님은 아침 일찍부터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나와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참아버님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매일 식단을 짜고,  
정성껏 음식을 만드셨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인기척 소리에 참어머님이 눈을 뜨니

참아버님께서 일어나고 계셨어요.

새벽 4시도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어요.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은 전날 밤 늦게까지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 새벽에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참어머님은 2시간밖에 못 주무셨지만 열른 일어나서

참아버님과 함께 기도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이렇듯 참어머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참아버님과 모든 일과를 함께하셨어요.





“이발할 때가 되셨네요.”

참어머님은 참아버님의 머리를 직접 손질해 주셨어요.  
솜씨가 좋은 참어머님께서 쑥싹쑥싹 머리카락을 자르면  
참아버님께서는 더욱 멋져지셨어요.



또각또각, 따각따각, 똑똑똑.

“다 되었습니다.”

“내가 깎아도 되는데….”

“참아버님 손톱, 발톱이 제 눈에 더 잘 보입니다. 호호.”

참어머님은 참아버님의 손톱 발톱을 예쁘게

깎아드리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참아버님께서는 그런 참어머님을 사랑과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지요.



통일교회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세워졌어요.  
참아버님께서는 전 세계를 다니시며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하실 때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셔츠를 좀 더 챙겨 넣어야겠다.”

참아버님께서 외국에 가실 때마다 참어머님은 손수 여행 가방을 짜셨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참아버님의 여행 가방은 반드시 손수 꼼꼼히  
챙기셨어요.



아주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응애응애~”

“예쁜 공주님이십니다!”

교회 형편이 어려워 불도 끼지 못한 추운 방에서  
참어머님께서 아기를 낳으셨어요.



아기를 낳은 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추운 방에서 지낸 탓에  
참어머님께서는 온몸이 다 아프고 통통 붓는 병에 걸리셨어요.

“참어머님 괜찮으실까? 오늘도 편찮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는데….”

식구들은 참어머님의 건강을 걱정했어요.

